

市 교통약자 배차 지연·장기 방치 건축물 ‘도마 위’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서용규 “AI 배차 4~5시간 지연”
강 시장 “우선배차제 도입 검토”
이명노 “서진병원 방치 주민 불편”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배차 지연과 장기 방치 건물의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용규 광주시의원은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배차 시스템에 6억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배차 지연은 여전하다”며 “일반 택시 대기 시간은 5~15분이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평균 2시간, 최대 4~5시간까지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센터 운전원 성과급 균등 분배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권역별 차고제의 효율성 한계 △교육·노조 활동으로 인한 배차 지연과 대체 인력 부족 △광역 이동 서비스 한계 등을 함께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1년 이후 교통약자 등록 인구는 32% 증가했



광주시의회 서용규 시의원이 1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지적, 강기정 광주시장이 “장애인 배차 지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고 운행 건수도 6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평균 대기시간은 29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됐다”며 “다만 일부 4~5시간 대기도 있다는 것이 현실인 만큼 배차 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단순 거리 기준의 AI 배차 시스템 한계를 보완해 긴급 상황에는 ‘우선배차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운

행 실적 평가가 어려워지며 균등 지급 체제로 전환됐지만, 올해부터 다시 차등제 도입을 시작했다”며 “성과 기반의 동기 부여 체계로 전환해 서비스 질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운전원 교육으로 인한 배차 지연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사항으로 시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주말 교육 유도와 대체 인력 확보 등 간접 유도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진행된 시정질문에서는 이명노 시의원이 광주지역 장기 방치 건물의 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30년 넘게 방치된 서진병원 건물 문제는 디는 미뤄둘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거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민간과 협의한 활용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진병원은 1982년 서남대학교가 의대 유지를 위해 착공했으나, 1989년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게 방치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 의원은 “이 건물은 서진여고, 대광여고 등 학생들의 통학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악취·소음·무단 투기 등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 시도·매입 제안·활용 계획 등도 내놓지 않은 채 수년간 손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나 권리 취득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철거를 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사유물에 대한 철거는 실익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철거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의사회 “의대생 복귀, 의료 정상화 전환점”

“정부·의료계 공동책임 필요”

광주광역시시사회가 의대생들의 교육 현장 복귀 결정을 환영하며 의료계의 회복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시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교실을 떠났던 의과대학생들이 7월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이들의 결단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의사회는 성명서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의료 혼란 속에서 많은 의대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이제 이들이 다시 의학도의 길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자 의료계 재정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대생들의 복귀는 단순한 학업 재개를 넘어 미래

의료 인재 양성과 건강한 의료 환경 회복을 위한 공동의 출발”이라며 “국회와 정부, 의료계 모두가 공동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 의료 공백과 시스템 위기를 수습하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의사회는 국민을 향해 “돌아온 의대생들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격려로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기성세대 의사로서 그간의 혼란과 의료 공백에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광주의사회는 앞으로 의대생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5·18과 코로나를 함께 극복했던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의료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노병하 기자



전남교육청 관계자와 모로코 교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모로코 교사들, 전남서 AI교육 배운다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전라남도교육청이 모로코 교사 30명을 초청해 ICT 연수를 진행하며 디지털 교육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은 디지털 교육 세계화의 일환으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모로코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모로코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아두이노를 활용한 AI 교육, 햄스터 로봇 실습, 전남메타스쿨 체험 등 실습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문태고등학교를 방문해 디지털 수업을 참관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교수학습 노하우를 공유받는다.

모로코 방문단 대표 유세프 카르피(Youssef Kerfi)는 “이번 연수를 통해 ICT 전문성을 한국에서 배우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동강대 ‘RISE’ 본격 시동…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앞장

신청 11개 과제 모두 선정 사업 기획력·수행 역량 입증

“인재를 키우고 기업 가치는 높이고, 대학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한다”

동강대학교가 광주 특화 산업과 연계한 RISE(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지역과 동반 상생에 뜻을 단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업, 돌봄, 글로벌 오픈 캠퍼스 분야를 비롯해 ‘AI(인공지능)·DX(디지털전환) 기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을 쏟으며 현장 밀착형 교육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14일 동강대에 따르면 RISE사업단은 지난 8일 교내 본관 1층 장원홀에서 광주 RISE센터(센터장 김보현)와 대학 RISE 추진사항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동강대 RISE사업단 전영남 단장과 위형도 센터장, 단위과제별 책임교수와 광주 RISE센터 김보현 센터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강대는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추진한 ‘2025년 RISE 사업’에서 11개 단위과제를 신청, 모든 과제가 선정돼 기획력과 실행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앞서 동강대는 지난 2월 ‘RISE’ 사업을 대비해 가상공간 교육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설명회를 열고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을 한데 모았고 ‘RISE’를 반영한 대학 중장기발전계획도 공유했다.

동강대 전영남 RISE사업단장은 “광주 RISE센터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고교-대학 연계 예비 인재 양성과 창업 인프라 고도화, 기술-인재-산업 연계형 협력체계 조성, 복지·의료 융합 인력 양성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성과 중심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교육청, 협업포인트제로 조직문화 혁신

상반기 최우수 직원 표창 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협업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상반기 우수 직원과 부서를 선정해 표창했다.

14일 시교육청은 업무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업포인트제’를 지난 2월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 내 소통과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일 개인별 200

포인트가 자동 부여된다.

포인트는 타 부서 직원과의 협업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경우 감사 메시지와 함께 10포인트씩 전달할 수 있다. 같은 부서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게는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받은 포인트는 100% 인정되며, 보낸 포인트도 50%가 인정된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조율한 주관 담당자에게는 특별협업포인트 100점이 부여된다. 포인트 합산 기준은 받은 점수와 보낸 점수를 더해 산정되며, 시교육

청은 이를 바탕으로 반기별 우수 직원과 부서를 선정하고 있다.

14일 열린 중간확대간부회의에서는 협업포인트 상반기 우수 직원 3명에게 교육감 표창이 수여됐다. 최우수 협업직원은 총 1445점을 획득한 총무과 백승현 주무관이 차지했으며, 권선택 주무관(미래교육기획과, 1100점), 한창호 주무관(총무과, 580점)도 우수 협업직원으로 선정됐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협업포인트제는 개인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직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라며 “하반기에도 협업 행정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전남교육청, 상업계고 졸업자도 공무원 채용

교육행정 직렬 첫 수습 선발

전라남도교육청이 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 수습 직원으로 선발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상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우수 인재 수습직원 선발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 상업계고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수습 직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시설, 공업, 조리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에 한해 지방공무원으로 선발해 왔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교육행정 직렬까지 확대하면서 상업계고 학생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수습 직원으로 선발되면 6개월간의 수습 근무를 거쳐 업무 수행 평가 및 임용 심사를 통해 9급 공무원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계획이 지역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에서 성장과 정착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